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권리행사 독려

8월 4일까지 신청 종료, 등기 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부안=고병하 기자

부안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일 7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

제 관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치한 5명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군청 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토지와 건축물은 보증서 한 장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시 토지는 민원과 토지관리팀, 건물은 민원과 건축허가팀에서 처리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이해관계자에게 통지와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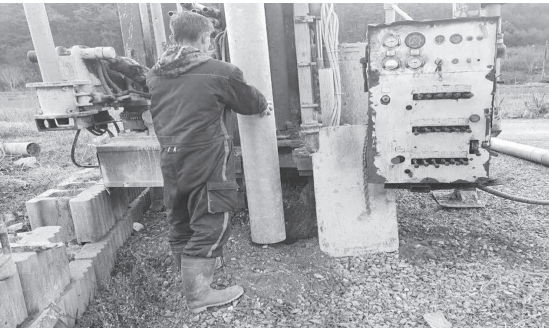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공고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갖고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무사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길어지는 봄 가뭄…완주군, 대책 총력전

가뭄이 이어지면서 완주군이 가뭄피해 대책을 수립,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군은 지난달 26일 일강수량 23mm이후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모내기철 농업용수 확보 및 발작물 용수 공급을 위한 가뭄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확보된 저수량(174만4천톤)은 저수를 70%로 모내기가 완료되는 6월 중순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한 달 이상 무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전수답은 모내기가 지연되고 발작물은 작물 생육 부진 및 재배 수량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중·소형 관정 60공을 개발 중에 있으며, 대형관정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고장 시 신속하게 수선하기 위하여 수리전문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외에도 가뭄지역을 대상으로 들새개발 및 펌프 및 호스 등 지원, 하상굴착이 필요한 지역에 굴착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고 발작물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설치용 물통 지원 등 가뭄 피해 선제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후 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해대책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가뭄 상황 및 농업용수 공급 관련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성일 군수는 “이번 가뭄으로 주민들이 많은 영농불편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점검 및 가뭄긴급대책사업을 통해 가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완섭 기자

천군만마 얻은 유희태 “살맛나는 완주 만들겠다”

6.1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과정에서 돌출한 후보진영 간 쌓인 서운한 감정이 일순간 풀리면서 '원팀'으로 가동되자 완주 지역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이돈승 전 후보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경선 승복 의사를 밝히며 유희태 후보를 돕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두세훈 전 후보를 비롯해 당내 모든 후보자가 원팀을 이루자 그에 따른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돈승 전 후보의 합류로 지지세 결집이 이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의 진영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재경선으로 유희태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틀 후인 11일 두세훈 전 후보가 유희태 후보를 찾아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함께 완주군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지난 21일 정세균 전 총리와 이돈승 전 후보가 유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유 후보에 대해 전격 지지 선언하면서 원팀으로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의 본격적인 세불이가 시작됐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돈승 전 후보와 두세훈 전 후보의 합류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 결집이 이뤄지면서 유 후보 진영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두 명의 전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합류로 인해 유 후보의 지지세가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첫 공식선거일인 지난 19일에 비해 최근 세 명의 경선 후보자들이 함께 지역을 돌며 유세 활동을 펼치자 지지 분위기가 눈에 띄 정도라는 자체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후보에 따라 갈라졌던 당원들이 다시 화합하면서 개인의 승리가 아닌 당의 승리라는 공공적인 목표가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게 선대위 관계자의 말이다.

유 후보는 “천군만마 정도가 아니다. 이돈승 전 후보, 두세훈 전 후보와 함께라면 이번 지방선거는 질 수 없는 게임이다”면서 “군수는 지역민의 대표자이며 대변자이자, 지역을 위한 봉사자로 완주의 갈라진 민심을 화합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고 싶은 완주, 살기 좋은 완주, 살맛 나는 완주 등 미래 행복 도시 완주를 두 명의 전 후보들과 함께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소완섭 기자



완주 용진읍, 민관협력으로 위기가구 지원

완주군 용진읍이 위기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26일 용진읍은 맞춤형복지팀,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대영이파트관리사무소, 용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사례회의에 상정된 대상자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우울증·허리통증 등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로, 이날 회의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화정 읍장은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대상자의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진읍 맞춤형복지팀은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소완섭 기자

군산 한국민주노총, 강임준 후보 지지-정책협약 체결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에 대한 양대 노총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책 협약 체결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과의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군산지부는 25일,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고진국 지부장은 “강임준 후보는 오랫동안 민주와 운동을 해 온 후보로서, 노동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노동존중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며 지지 이유를 공언했다.

이에 강임준 후보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지열 군산공장 폐쇄 등 노동자와 가족들이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인내하고 힘을 합친 노동자와 시민들의 성숙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 재도약이 시작될 것”이라며 “경제 도약과 함께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는 노동존중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오후에도 민주노총과도 노동정책협약을 체결, 강임준 후보와 민주노총이



정책적 연대를 갖기로 했다.

25일 오전 11시에는 군산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로 구성된 군산학부모네트워크·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와 교육정책 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임준 후보는 민선 7기에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에 매진하다보니 교육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민선 8기 제1공약인 교육하기 좋은 군산 정책으로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군산시가 책임지는 교육,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교육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열정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유규 기자

국영석 “완주를 대한민국 1등 행복도시로 만들 것”

국영석 완주군수(무소속) 후보는 26일 유세 현장에서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분에 넘치는 격려와 사랑에 대한민국 1등 행복도시 완주 완성에 힘을 얻는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국 후보는 선거전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고산, 봉동, 삼례 등 완주군 구석구석을 누비며 완주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국 후보는 “유세현장에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군민들을 만날 때마다 뜨거운 환영과 격려에 피곤한 줄 모르겠다”며 “분에 넘치는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 후보는 “저는 20대에 동네 이장을 시작으로 완주군민과 함께했고, 완주군이 처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재선 도의원, 농협조합장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1등 행복도시 완주 완성의 꿈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국 후보는 “부족한 자에게 고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인품만을 보고 평가



하고, 완주군 발전에 적합한 인물만을 생각하는 완주군민의 완주 사랑의 결과로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보다는 오로지 완주군민만을 생각하고, 정책 선거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완주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완섭 기자

송지용 “국영석 후보와 단일화, 힘들지 않겠나”

지난 19일 국영석 후보는 정책연합 등의 방법을 얘기하며 후보단일화의 협상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한 송지용 후보 측의 입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완주군 여성단체 고문단의 유희태 후보 측에 대해 ‘고리사제 업체 주식보유 여부 논란 해명 촉구’요구와 국영석 후보에 대한 ‘상습도박 혐의의 고발과 수사 착수’ 등으로 선거 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하는 판단이다.



또한 27일·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25일 밤11시부터 진행된 KBS 완주군수후보 선거토론회에서 송 후보는 유희태 후보에 대하여 자칭 ‘경제전문가’라고 하면서 주요 정책결정

/소완섭 기자

정읍시, 메기 치어 47만 마리 방류

정읍시가 사라져 가는 토종어류의 자원 확충과 보전에 나섰다.

시는 26일 동진강 수계 주요 지방하천인 칠보천과 원평천에 메기 치어 47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내수면 생태계의 서식 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어획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토종 어종의 자원을 증강하기 위함이다.

방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산인 단체와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어가 등 최소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방류한 메기 치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6cm 이상 건강한 종자만을 선별했다.

이었던 정환용 배우가 정읍을 찾아 생고를 시장과 내장 상들을 돌며 시민들에게 이학수 시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도·시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박기수 기자



행도 이 후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유명 인물과 중앙 정치인들이 잇달아 정읍을 찾아 이학수 시장 후보 등 더불어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1일에는 고영인(안산 단원 갑) 국회의원이 정읍을 찾아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23일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이학수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한 정읍 발전을 한목소리로 응원했으며 24일에는 탤런트이자 전 국회의원이었던 정환용 배우가 정읍을 찾아 생고를 시장과 내장 상들을 돌며 시민들에게 이학수 시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도·시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박기수 기자